

고등학생들의 독해능력 고찰 -상위인지(metacognition) 관점에서-

최종욱
(수원여자고등학교)

Choi, Jong-wook. 2005. Reading Comprehens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Metacogni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107-12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nglish read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been taught mainly in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Consequently, they did not have trouble in the sentence level translation, but were not as competent at reading comprehension. The present paper seeks; (1)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reading strategies and their use by high school students, and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s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 survey on the students' perceptions of reading strategies and their use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160 second year students at Suwon Girl's High School. The top third and bottom third were placed into the upper and lower groups according to the Practice Tes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hich was to compare the better and poorer read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1) There is a slight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comprehension and the perceptions of reading strategies and their use for high school students. (2)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op-down strategy used and debilitating bottom-up strategies between the better and poorer readers. (3) A predictor of reading comprehension is the perceptions of top-down strategies actually being used for them.

주제어(Key Words): 영어독해, 독해전략, 상위인지

1. 서론

독해이론은 지난 세기 중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까지 주류역할을 해온 행동주의(behavioral prospect)적 관점은 1970년대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독해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준 계기가

된 전체적(holistic)이고 상호작용적인(interactive) 접근법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상위주의 교육법을 주장한 학자들은 독해를 단순히 종이위에 쓰여진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지적(cognitive), 발전적(developmental), 그리고 사회적 socially)으로 형성된 과제라고 간주한다. 종전에는 독해는 일종의 정적인 활동이었다. 의미가 텍스트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독해자의 임무는 단순히 종이위에 쓰여진 단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했다. 현재는 독해를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독해자는 자신이 텍스트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의미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훌륭한 독해전략이 밝혀지고, 전략의 사용이 독해능력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더욱이 독해력 전략의 더 유용한 활용을 위해 상위인지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Barnett,1988; Carrell,1989; Carrell et al.,; Casanave,1988).

이 논문은 주로 문법-번역식 학습을 해온 한국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독해 전략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지와 독해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상위인지(Metacognition)

2.1. 상위인지의 정의 및 역할

상위인지는 흔히 사고에 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라고 정의되며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상위 인지적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Flavell(1979,1987)에 의하면 상위인지는 상위인지 지식과 상위인지 경험 및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된다. 상위인지 지식은 인지과정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인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es)에 관한 획득된 지식을 나타낸다. 상위인지 경험은 상위인지전략의 사용과 상위인지 조절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인지는 성공적인 학습을 도와주고 지능과도 연관이 있어왔다(eg, Borkowski, Carr & Pressley,1987; Sternberg, 1986 a, 1986b). 상위인지는 학습과 관련된 인지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위인지는 학업 성패와 관련이 많고, 독해력에 적용될

때에는 여러 요소 들을 포함하게 된다. 즉, 텍스트에서 실수나 모순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텍스트에 따라 다른 전략사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등이다(Nist and Mealey,1991).

2.2. 상위인지 독해전략

상위인지 독해전략은 인지적 활동들을 조절하고 인지적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들은 학습을 조절하고 감독하게 도와주고, 그런 활동들의 결과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활동들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의 한 단락을 읽은 후 학습자는 그 단락에서 논의된 개념들에 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그 학습자의 목표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흔한 상위인지 이해조정 전략이다. 만약 그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논의된 그 읽기자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학습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그가 만 들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단락으로 돌아가 다시 읽을 수도 있겠다. 만약 그 텍스트를 다시 읽은 후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자료를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상위인지 전략은 독해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수원여고 2학년 학생들로 모의고사 독해력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상위권80명(상위 30%이내), 하위권 80명(하위 30%이내)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것은 독해력이 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5개 학급 650명 중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30%이내인 학생 80명과 하위 30%이내인 학생 80명을 각각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모의고사는 5지 선다형문제들로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평

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독해부분점수를 추출해 이용했다.

이 연구대상 학생들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학생들로서 중학교 때부터 의사소통중심교육의 영향으로 문법 등 영어기초능력 뿐만 아니라 어휘력, 그리고 독해능력도 종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더욱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독해비중 때문에 중학교 때의 학습방법에서부터 독해능력 배양위주의 영어학습이 갑작스레 강요되었다. 따라서 영어어휘와 영어독해능력에 상당함 부담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독해전략 내지는 상위인지 독해전략에 혼선을 겪고 있다.

3.2. 연구방법

이 연구에 의도된 연구 질문은 (1) 고등학생들의 독해전략 인지와 그 사용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2) 고등학생 우수 독해자와 열등 독해자 사이에 독해전략과 인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3) 독해전략의 어떤 인지와 그 사용이 고등학생들의 독해력에 기여를 하는가? 등이다.

우선, 실험대상 학생들의 독해전략 인식과 사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인(factors)들을 구별하기 위해 분산최대화회전을 사용하여 주성분절차로 설문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준절차(standard procedure)를 한 후, 인자적재 값이 .50이상인 설문항목들을 다섯 개의 요인(factor)으로 나누었고, 그룹으로 나누어진 항목들의 공통성(commonality)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제목)을 붙였다. 둘째, 각 요인들의 평균점수(mean points)와 그것들의 설문항목들이 unpaired test에 의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설문항목 및 요인들로부터 독해력 점수의 예측변수를 밝혀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는 모든 설문항목 및 5가지 요인의 점수이고, 의존변수(dependent variable)는 독해력점수였다.

3.3. 연구자료

독해전략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와 사용에 대한 설문은 36개 항목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 문항은 Carrell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국고등학생들의 독해전략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재구성하였다. 먼저 독해전략의 인

지에 대해 상위권 과 하위권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요인1), 하향식 전략의 실제사용과 상향식독해전략을 알기위한 문항들(요인2와 요인3).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들이 부족한 독해에 필요한 영어 기초능력에 관한 설문(요인4와 요인 5)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scale에 의한 이 설문(강한 동의=5, 강한 이견=1)은 일반 교실에서 1주일 안에 학생들에게 30분 동안 실시되었다. 인자적자 값이 .50이하인 설문문항 10개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3.4. 연구자료 분석

3.4.1. 기술통계

아래 표 1은 설문조사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학생의 평균은 3.13(n=160, S.D=.52), 상위학생들 경우 평균은 3.17(n=80, S.D=.58), 하위권은 평균이 3.09(n=80, S.D=.53)이었다. 독해력점수의 경우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mean)이 56.53(n=160, S.D=22.18)이었다. (상위권 학생들 평균 77.81(n=80, S.D=8.17), 하위권 학생들 35.24(n=80, S.D=2.29))

표 1. 전체학생 기술통계(n=160)

Item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ean	2.75	2.83	2.84	3.02	3.29	3.99	3.36	3.78	3.84	3.18	2.58	2.96	3.14
S.D	1.09	.94	.90	.90	.90	.90	1.14	1.03	1.01	.93	.98	1.00	.9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54	2.24	2.74	3.26	3.25	2.96	3.04	2.59	2.33	3.76	3.53	1.78	3.22
	.93	.76	.95	.89	1.01	.85	.90	.93	.77	1.06	1.10	.94	1.27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All the items		
	3.21	3.16	2.43	3.28	4.03	3.03	3.99	3.47	2.69	3.68	3.13		
	1.06	.95	.92	1.07	.89	1.03	.82	.91	.98	.89	.52		

3.4.2. 요인 분석

주성분절차와 분산최대화전에서의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있는 설문지의 각 내용은 학생들의 전략과 사용에 대한 상위 인지적 인식에 따라 5개의 요인들로 분류됐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2. 요인분석(n=160)

Item No.	Factor loading					Commonality (final estimate)
	I	II	III	IV	V	
30	.847					.608
35	.775					.678
31	.769					.737
36	.693					.670
33	.690					.833
32	.631					.633
34	.586					.681
8		.764				.654
1		.742				.722
2		.733				.636
3		.718				.690
17		.666				.576
7		.631				.667
5		.595				.576
15			.822			.587
23			.782			.648
18			.727			.673
13			.714			.653
9			.672			.762
10			.648			.674
21				.828		.743
22				.732		.679
24					.789	.737
27					.753	.714
28					.710	.759
22					.648	.708
고유치(Eigen value)	5.388	3.616	2.454	2.116	1.875	
설명분산 (% of variance)	14.966	10.044	6.817	5.879	5.210	

표 3.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한 설문항목

요 인	항 목	내 용
1. 독해력의 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인지	30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단어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35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 세부내용 파악에 중점을 둔다.
	31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36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짜임새(organization)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33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잘 추측하는 사람이다.
	32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34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정보를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와 통합하는 사람이다.
2. 독해의 효율적인 하향식 전략의 실제 사용	8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읽는다.
	1	나는 독해 시 그 지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2	나는 독해 시 요점(main points)과 그 요점을 보조하는 세부 사항(supporting points)을 인지 할 수 있다.
	3	나는 독해 시 그 지문 다음에 나올 내용을 먼저 나온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17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지문과 연계하여 독해하는 것이다.
	7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계속하여 읽어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3. 독해의 효율적인 상황식 독해전략	5	나는 읽고 있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이전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15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 발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23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각 단어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18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는 것이다.
	13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각각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9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는다.
4. 독해에 저해가 되는 발음 및 글자에 관한 상황식 전략	10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사전에서 모르는 부분을 다시 찾는다.
	21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개별 단어의 소리(音)를 잘 모르는 것이다.
5. 독해에 저해가 되는 문법과 담화에 대한 전략	22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단어들의 발음문제이다.
	24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문법구조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27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28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그 지문의 짜임새(organization)파악이다.
	26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내가 그 주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읽고 있는 지문을 관련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표4. 요인 기술통계

	모든 학생		상위권		하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1	3.4527	.4821	3.4982	.4746	3.4071	.4881
요인2	3.1598	.6572	3.4357	.6453	2.8839	.5465
요인3	3.2354	.5208	3.1833	.5214	3.2875	.5183
요인4	2.4625	.7259	2.2688	.7202	2.6563	.6825
요인5	3.0594	.6120	2.9812	.6312	3.1375	.5858

모든 학생(n=160), 상위권, 하위권 (n=80)

3.4.3. T검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사이에 요인들의 평균점수와 그것들의 설문지 항목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번째와 4번째 요인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표 5 와6).

표 5. 성적에 따른 요인 차이 검증(n=80)

	df	t	p	
요인1	158	1.196	.233	
요인2	158	5.836**	.000	상위권 > 하위권
요인3	158	-1.267	.207	
요인4	158	-3.493**	.001	상위권 < 하위권
요인5	158	-1.623	.107	

* $p < .05$, ** $p < .01$

표 6. 성적에 따른 하위 요인 문항 차이 검증(n=80)

	문항	df	t	p	
요인1	30	155	.738	.462	
	35	158	-1.052	.295	
	31	158	.089	.929	
	36	158	.089	.929	
	33	158	1.935	.055	
	32	158	-.611	.542	
	34	158	3.600**	.000	상위권 > 하위권
요인2	8	158	.538	.591	
	1	158	4.960**	.000	상위권 > 하위권
	2	158	5.382**	.000	상위권 > 하위권
	3	158	4.559**	.000	상위권 > 하위권
	17	156	4.191**	.000	상위권 > 하위권
	7	158	2.537*	.012	상위권 > 하위권
	5	158	4.557**	.000	상위권 > 하위권
요인3	15	152	1.876	.063	
	23	153	-2.593*	.010	상위권 < 하위권
	18	158	-2.549*	.012	상위권 < 하위권
	13	158	-2.921**	.004	상위권 < 하위권
	9	150	2.977**	.003	상위권 > 하위권
	10	158	-.424	.672	
요인4	21	158	-2.857**	.005	상위권 < 하위권
	22	150	-3.069**	.003	상위권 < 하위권
요인5	25	158	.334	.739	
	27	158	1.345	.180	
	28	158	-.998	.320	
	22	150	-3.069**	.003	상위권 < 하위권

* $p < .05$, ** $p < .01$

한 가지 발견점은 효율적인 전략(요인1)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점이 없었다(상위권 3.49, 하위권 3.40). 그러나 하향식(top-down)기술의 사용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요인2: $t=5.836$, $df=158$, $p<.000$).

결론적으로 말해 열등한 독해자들은 하향식 독해전략의 효율성을 상위권 독해자들 못지않게 알고 있지만 사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 전략은 평균가치(3.43)를 고려해 볼 때에 상위권 독해자 들에게도 그렇게 쉬어 보이지는 않는다.

상향식(bottom-up) 전략은 어떠했는가? 효율적인 상향식 전략사용에 대한 인지는 두 집단 사이에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요인3; 상위권3.18, 하위권 3.28). 한편 요인 4에서의 의미 있는 평균의 차이(요인4;t=-3.493, df=158, p<.001)는 하위권에서 발음과 단어 인식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요인에 대한 낮은 가치(상위권 2.26, 하위권 2.65)은 두 집단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내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요인 5(문법과 담화관련)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이 전략들의 사용에 있어 약간 강하게 비슷한 차이점을 나타낸 것 같다(상위권 2.98, 하위권 3.13). 분명한 것은, 담화수준의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문법도 아직 발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4. 다중 회귀 분석(Multi regression Analyses)

다음 표 7과 표 8은 독립변수로서 요인 5개와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그리고 종속 변수로서 독해 점수를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들이다. 분석결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요인2 (문항 중에서는 34번 문항)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독해력점수 변량의 24.7%($R^2=.247$)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요인2로 나타났으며, 요인2 중에서도 1번 문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독해력점수 변량의 7.5%($R^2=.075$)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항은 30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해력점수 변량의 4.9%($R^2=.049$)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표 7. 독해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Factor	beta	t	p	
모든 학생	(상수)		2.698	.008	(F[2,157]=25.762*, R ² =.247)
	요인2	.415	5.873**	.000	
	요인4	-.202	-2.861**	.005	
상위권	(상수)		13.670	.000	(F[1,78]=6.326*, R ² =.075)
	요인2	.274	2.515*	.014	
하위권	none was significant				

a 종속변수: 독해력 점수

표 8. 독해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문항	beta	t	p	
모든 학생	(상수)		2.928	.004	(F[6,153]=13.619*, R ² =.348)
	2	.220	2.602*	.010	
	34	.224	3.335**	.001	
	13	-.177	-2.636**	.009	
	1	.187	2.233*	.027	
	22	-.204	-2.928**	.004	
	15	.142	2.080*	.039	
상위권	(상수)		13.663	.000	(F[2,77]=5.578*, R ² =.127)
	1	.276	2.594*	.011	
	34	.219	2.056*	.043	
하위권	(상수)		39.609	.000	(F[1,78]=3.979*, R ² =.049)
30	.220	1.995*	.050		

a 종속변수: 독해력 점수, * p < .05, ** p < .01

4. 결론

앞에서 제기했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독해점수, 독해전략의 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사용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상위권과 하위권 독해자들 사이에 하향식 전략의 인지와 독해에 저해가 되는 상향식 전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3) 독해력에 대한 예측변수는 하향식 독해전략의 인지이며 또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발견들로 미루어 볼 때 하향식 전략을 사용하려는 효율적인 독해자들의 추세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히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용 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상향식

전략에 의존하려는 또 다른 경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이 전략들의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위권 독해자들 보다 상위권 독해자들이 하향식 및 상향식 독해전략을 더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전략들을 어디서 또 어떻게 얻었나?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산발적으로 말해주는 독해전략 기술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혹은 이 독해전략들이 한국어의 독해로부터 전이 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전이와 영어능력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더 나아가 독해력 향상을 위해 상위인지 전략을 학습시켜야하는가 등이다.

여기서 보여 진 연구결과는 적은 수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따라서 일반화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밝혀낼 수 있는 좀 더 깊은 연구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가지도록 하는 독해교육방법을 목표로 독해력과 상위인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희. (2004). 초인지 전략을 통한 새로운 영어독해전략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 단국 대학교 대학원
- Barnett, Marva A. (1988). Reading Through Context: How Real and Perceived Strategy Use Affects L2 Comprehens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2 (1988): 150-62.
- Borkowski, J., Carr, M., & Pressely, M. (1987). Spontaneous" strategy use: Perspectives from metacognitive theory, *Intelligence*, 11, 61-75.
- Carrell, P.L.(1989). Metacognitive awarenes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Modern Language Learning*,121-134.
- Casanave,P.C.(1988). Comprehension monitoring in ESL reading: a neglected essential. *TESOL Quarterly* 2, :283-302.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 906-911.
- Flavell, J. H. (1987). Speculations about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etacognition. In F. E. Weinert & R. H. Kluwe (Eds.), *Metacognition, Motivation and Understanding* (pp. 21-29).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ist, S.L. & Mealey, D.L.(1991). Teacher-directed comprehension strategies. In R. Flippo & D. Caverly (Eds.). *Teaching reading and study strategies at the college level*.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Sternberg, R. J. (1986a). Inside intelligence. *American Scientist*, 74, 137-143.
- Sternberg, R. J. (1986b). *Intelligence appli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부록

설문지

* 해당 문항에 ()표시를 해 주세요.

1. 나는 독해 시 그 지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독해 시 요점(main points)과 그 요점을 보조하는 세부 사항(supporting points)을 인지 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나는 독해 시 그 지문 다음에 나올 내용을 먼저 나온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작가가 말하려는 의미와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나는 읽고 있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이전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독해 시 잘 이해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잘 느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계속하여 읽어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읽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사전에서 모르는 부분을 다시 찾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무엇을 이해 못하면, 읽기를 포기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단어의 부분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각각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 발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나는 문법구조 (grammatical structure)에 중점을 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지문과 연계하여 독해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은,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한 가지는,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내가 하는 한 가지는, 지문의 짜임새(organization)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개별 단어의 소리(音)를 잘 모르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단어들의 발음문제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각 단어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4.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문법구조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5.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알파벳을 모르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내가 그 주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읽고 있는 지문을 관련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7.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

- 는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8.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그 지문의 짜임새(organization) 파악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9. 독해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는 단어들에 소리 내어 읽어내는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0.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단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1.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2.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3.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잘 추측하는 사람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4.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정보를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와 통합하는 사람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5.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 세부내용 파악에 중점을 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6. 독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문의 짜임새(organization)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최중욱

442-8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9-1

수원여자고등학교 외국어부

전화: (031) 2509-294

이메일: choijwwkr@yahoo.co.kr

Received: 30 Jun, 2005

Revised: 25 Aug, 2005

Accepted: 12 Sept, 2005